“보톡스 광고에 속지 마세요”

FDA, 보톡스 광고 중단요구 … 앨러간은 강력히 반발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보톡스 제조기업인 앨러간이 미국 연방법을 위반하고 소비자를 오도할 수 있는 정보를 담고 있다며 해당제품의 TV광고 및 환자들에 대한 홍보전단 사용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FDA는 최근 앨러간에 보낸 공문에서 환자들을 위해 펴낸 홍보전단이 주름살 제거치료제로 널리 알려진 보톡스 주사액의 효력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지(보통은 4개월)에서 약물 사용이 승인된 인체 특정부위가 어딘지에 이르기까지 모든 정보를 오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FDA는 또 앨러간은 의사들을 위한 웹사이트에서도 보톡스 용액을 어느 정도 희석해 사용해야하는 지 헷갈리게 기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FDA의 위반통보 공문은 경고장 발부의 전단계로 해당회사에 10일간 서면대응할 기한을 주고 있다. 앨러간이 광고중단을 이행하지 않으면 FDA는 다음 조치로 경고장을 발부할 수도 있다.

이에 앨러간은 “미간주름 제거” 등 미용목적으로 미국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보톡스에 대한 TV광고 혹은 홍보책자 배포중지 요구를 거부하고, 당국의 모든 지적에 대해 강력히 의견을 달리한다고 맞서고 있다.

한편, FDA의 공문발송으로 9월9일 뉴욕 증시의 앨러간 주가는 주당 65센트 하락해 56.44달러에 거래됐다.

<Chemical Daily News 2002/09/17>